

아시아 전체

# [시사토크 판] 와카미야 요시부미 "日 발전하려면 한·중과 우호적 관계 지켜야"

등록 2013.08.13 22:46



[시사토크 판] 392회

와카미야 요시부미 前 아사히신문 주필 "일본 발전하려면 한·중과 우호적 관계 지켜야 할 것"  
 13일 시사토크 판에는 와카미야 요시부미 전 아사히신문 주필이 출연했다. 일본의 대표적 친한 파 언론인인 그는 한국과의 인연에 대해 "아사히 신문에서 기자생활을 하다가 한국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았다. 아사히신문 정년퇴임 이후로 한국에 와 한국어 교육 과정을 이수하며 동서대 교수와 서울대 일본연구소 객원 연구원으로 일하게 되었다. 일본 정부나 일본 국민들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에게 한일관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싶었는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" 고 말했다. 최근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의 우경화 행보에 대해서도 논했다. 그는 "일본 국민들이 대부분 우경화에 완전하게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것은 아니다. 아베 총리가 아무리 개헌과 우경화에 마음을 두더라도 일본 전체의 의견이 늘 아베 총리와 같진 않다"고 밝혔다.

8.15 광복절을 앞두고 일본 일부 관료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"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나도 늘 비판하고 있다. 일본 정치인의 신사참배는 하루아침의 문제가 아니다.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행은 습관적인 것으로 봐도 될 것 같다. 반면 일본 국민들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가족 애도를 위해 가는 경우가 많다"고 말했다.

와카미야 요시부미 교수는 한국 국민과 아베 총리를 향한 당부의 말도 남겼다. 먼저 그는 "한·일 간 젊은 세대들의 활발한 교류는 정치적 관계 악화를 완화하는 데에 좋을 것 같다. 한국 국민들도 일본이라는 국가의 장, 단점을 이해해주시다면 좋겠다. 일본 또한 한국을 잘 알아가야 할 것이다. 아베 신조 총리는 주변국, 특히 한국과 중국의 협력관계 없이는 일본의 발전이 어려움을 알아야 한다. 한국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. 자유와 민주주의, 인권과 법치 등을 중시해 온 아베총리는 모범적인 가치관으로 한·일 양국에 산적한 역사 논란을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. 한국 정부 또한 아베 총리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"고 설명했다.

- 출연자 : 와카미야 요시부미 前 아사히신문 주필
- 방송일시 : 2013년 8월 13일 (화) 밤 10시 40분
- 진행자 : 최희준 취재에디터, 박은주 조선일보 문화부장

Copyrights © TV조선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닫기    인쇄하기